

말씀:

이단의 특징

금주 이스라엘에서는 고엘 라죤¹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상한 이단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약 스무 명을 처 또는 첩으로 삼아 거느렸습니다. 그 여자들과 자녀들은 심리적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엔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는 이단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피하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들을 일단 5가지 범주로 나눠 보겠습니다.

1. 지배적 리더십 – 이단의 첫 번째 표징은 과도하게 지배적인 리더입니다. 추종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할 정도의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아무 의문 없이 따릅니다.

성경에 기초한 공동체에는, 영적 권위를 가진 분명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허나 그 리더십은 장로의 무리와 공동체원들의 관여, 그리고 다른 리더들의 조언을 통해 균형을 이룹니다. 도덕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지요. 저는 제 책 <언약적 관계²>에서 “리더십-복수적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영적 리더십은 권세의 각 범위 안에 한정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가정의 권세, 일터의 권세, 정부의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2. 행동의 절제 – 저희 공동체에서, 영적 리더십들은 성경에 나타난 성결과 청렴, 신실의 원칙을 따라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삶을 꼬치꼬치 지적하고 조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로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권면을 하지만,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선택은 그 개인에게 남은 문제입니다. 도덕적 확신을 설교하는 것과 통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단에서는 추종자들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통제됩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를 지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적 강압은 초정통파 유대교에 속하는 많은 무리들에서 발견됩니다. 이단은 보통 개인들의 전 재산, 수입과 지출을 지휘하려 합니다. 성경적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이 베품과 청렴의 원칙들을 배우게 되지만 스스로 얼마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3. 사회적 폐쇄 – 성경적 공동체에서는 모두 정욕과 탐욕 등 세상 문화의 죄 된 가치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단 추종자들은 가족과 공동체원들과의 교통이 단절되도록 폐쇄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아께서는 세상 “안에” 있지만 거기 “속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 17:15-16).

¹ Goel Ratzon

² <Covenant Relationships>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야 하지만,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외의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각각의 모임이 강조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지역 회중은 스스로를 수많은 흐름과 강조점을 가진 큰 세계적 몸의 한 부분으로 볼 뿐입니다.

이단 추종자들은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떠나고 싶지만, 그 무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 무리가 세상 어느 모임보다 낫다고 배웁니다. 머물러 동화돼야 한다는 압박은 보통 죄책감을 조성하고 정죄함으로 형성됩니다.

4. 지적 폐쇄 - 저희는 성경이 세상 속에 유일한 진리의 표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개인이나 모임도 성경에 대한 이해를 독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형태의 공부(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를 권장합니다. 영적이든 실용적이든 말이죠.

이단의 한 가지 특징은 자신들의 모임 외에서 학습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단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높은 계시를 받았다고 배웁니다. 그 무리 밖에 있는 이들은 결코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은 이 비밀한 계시를 받을 길이 없다고 배웁니다. 저희는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지만, 그 계시는 모두에게 열린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바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5. 자멸적 경향 - 이단은 추종자들의 행동을 통제할 뿐 아니라, 그 행동들은 조만간 파괴적이고 병약하게 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돕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가르칩니다. 허나 남을 돕기 위해 이기심을 자제하는 것과 자멸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우리에게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과는 다르게, “**생명을 더욱 풍성히**”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10:10). 예슈아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보라고 예슈아께 도전했습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바가 건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과 혼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주셨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입니다.

요약: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격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 체험들을 비롯해서 말이죠. 우린 우리의 믿음에 대해 열심과 열정이 있고, 우리의 믿는 바를 주변 사람들과 기쁨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의 온갖 특징들은 배격합니다. 우리가 높은 성결과 순종의 기준을 갖고 있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고 항상 양심의 자유와 관여된 이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소식:

아이티 원조

저희는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아이티에서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기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숙련된 의사와 구조 전문가 등 220 명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00 명의 일군을 보내고 백만 불 이상을 원조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 비난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는 걸로 보면, 이 둘보다 적극적인 국가가 없습니다.